

이승원 감독 “여배우 3명과 우여곡절... 좋은 성적 거뒀으면”

‘세자매’, 배우 문소리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

“아내 김선영 덕에 배우들 연기 깊게 이해”

“보편적인 이야기... 공감과 의미 얻을 것”

27일 개봉하는 가족 영화 ‘세자매’는 한국영화로는 드물게 세 명의 여성 배우가 극을 이끌어가는 작품이다. 문소리와 김선영, 장윤주 세 배우의 앙상블과 에너지로 짝 채워졌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2021년 영화계를 찾은 첫 번째 한국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는 겉으로는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 가식덩어리, 소심덩어리, 골칫덩어리인 세 자매가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덮어댈던 기억을 풀어내며 폭발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김선영이 연출한 첫 번째 희극, 문소리가 완벽한 척하는 둘째 미연, 장윤주가 안 취한 척하는 셋째 미옥을 연기했다.

‘소통과 거짓말’, ‘해피비스데이’ 등을 통해 섬세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이승원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다.

5년 전 전작 ‘소통과 거짓말’로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넷팩상-올해의 배우상 등을 받은 그는 당시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이던 문소리와 인연이 닿아 작품을 제안했다.

‘세자매’를 연출한 이승원 감독을 만

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문소리 배우와는 대화를 몇 번 나눠본 정도인데 알게 모르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다”는 그는 “둘째는 문소리 배우가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정하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했다.

“이런 부분은 문소리 배우가 잘 표현하지 않을까, ‘관객들에게 한 번도 안 보여준 모습일 것 같은데’ 하면서 많은 상상을 했다. 문소리 선배가 자기의 안 좋은 모습이 미연과 닮은 것 같다고 했다. 그분의 성향과 생각, 철학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구나하고 생각하면서 쓴 작품이다.”

문소리와 공동 작업으로 시너지 발휘

문소리는 처음 출연 제안과 함께 전달받은 ‘세 자매’의 초고를 본 뒤 시나리오에 공감해 공동 프로듀서로 제작에까지 참여했다. 내부적으로는 시나리오를 다듬는데 주력했다.

이 감독은 “처음에는 막내를 김선영 씨가 하고, 첫째는 더 나이트 배우가 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문소리 배우가 제작자 마인드도 있었고 큰 그림을 그

렸다”며 “상업영화로서 좀 더 어린 배우를 생각하셨다. 너무 어두운 영화로 흐르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셨다”고 고마워했다.

이어 “나 혼자 해결하는 스타일인데 이번 영화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서로 의지하며 만든 작품”이라며 “공동 작업에 목말라 있었더라. 서로 의견이 맞고 추구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이 모였을 때는 시너지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품이 깊어지고 단단해졌다”고 설명했다.

영화는 극적인 사건보다 인물의 상황, 감정에 집중한다. 캐릭터는 강렬하다. 관객에 따라 이상하게 보일 정도다. 첫째 희숙(김선영)은 “미안하다”, “괜찮다”는 말을 달고 살고 둘째 미연(문소리)은 남부러운 것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가식과 위선이 가득하다. 셋째 미옥(장윤주)은 슬럼프에 빠진 극작가로 술에 취하지 않은 날이 없다.

이 감독은 “감정이 세고 인물들의 설정이 과장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며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고 아픈 부분을 찢어다 보니 더 크게 와 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리얼리즘인데 인물들은 극사실주의다. 영화가 줄 수 있는 강력한 여운을 관객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고 싶었는데 맛있는 감정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세자매는 보는 이들이 저마다의 공감과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다양한 담론들이 생

될 영화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내 김선영 덕에 배우들 연기 깊게 이해

이 감독은 아내이자 주연 배우인 김선영에 대한 믿음과 애정도 드러냈다. 김선영 이승원 부부는 극단 ‘나베’를 운영하며 많은 작품을 무대에 올렸고, 김선영은 이 감독이 연출한 영화는 빠짐없이 출연했다.

가장 잘 맞는 조력자이자 팀이라는 생각이다. 이 감독은 “시나리오를 쓰면 먼저 보여 주는 분이 김선영씨다. 2004년 첫 단편 영화를 만들었을 때 처음 만났고 결혼한 후 10여년 동안 극단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며 “연극 배우와 연출가로 만났을 때도 서로 진심으로 믿어왔다. 김선영 배우는 제가 쓰는 글이나 연출을 가장 좋아해주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문소리 배우가 격하게 토론하는 부부라고 하셨는데 사실 김선영 배우의 연기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며 “연기가 어땠냐고 물어보는데 많은 얘기를 하진 않는다. 다소 표현이 거칠 뿐이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김선영씨를 통해 배우에 대해 배우는 게 많다.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어떤 시선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 많이 배운다. 김선영 배우도 나를 통해서 연기가 깊어졌다고 하더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세자매’는 신작 기준 속 2021년 극



장가의 포문을 여는 한국 영화가 됐다. 공공롭게 중책을 맡은 셈이다.

이 감독은 “여성 배우 3명이 모였고 투자자를 모으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코로나 시국에 겨우 겨

우 촬영을 끝마치기도 했다”며 “그런 의미들이 하나하나 모였다. 흥행이든, 평가든 모두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뉴스

박은석 “반려동물 파양 의혹 사실무근...악성 루머 법적 조치”

친척·지인에게 보낸 후 왕래

배우 박은석이 반려동물을 여러 차례 파양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악성 루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박은석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27일 “확인 결과 제기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첫 번째 의혹이 있었던 푸들은 박은석 배우가 한국에 들어와 살게 된 할머니 집에서 함께 키우던 반려견”이라며 “이후 배우는 독립하게 되었고, 당시 혼자 생활하게 되며 대형견인 울드잉글리시집독과 고양이 2마리를 분양받아 키우게 됐다. 그러던 중 형편이 어려워 회사 숙소로 들어가게 되었고, 숙소는 단체생활로 반려동물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울드잉글리시집독은 당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마음이 아팠지만 깊은 고민 끝에 마담이 넓은 집을 찾아 분양을 보냈다. 고양이 역시 당시 배우의 형편을 잘 아는 지인이 키우고 싶다고 요청을 해 지인에게 보내졌고, 현재도 교류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후 박은석 배우는 회사 숙소



에서 나와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하게 됐다. 그때 할머니가 연로하신 관계로 앞서 언급된 푸들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배우가 보호를 맡게 됐다. 하지만 그곳에서 오래 키울 수 없는 환경으로 푸들은 이후 가까운 친척 누나에게 보내졌고, 현재도 친척 누나의 사랑 안에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애견샵에서 동물을 데리고 왔다는 의혹과 커뮤니티 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비글과 관련된 글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키우던 반려동물들은 지인과 가정 분양을 통해 입양이 이뤄졌으며, 비글 또한 키운 적 없던 동물로 사실이 아닌 글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슈퍼주니어, 8년 만에 일본 정규 앨범 ‘스타’ 발매

총 30 트랙 수록

그들 ‘슈퍼주니어’가 일본에서 새로운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지난 2013년 발표한 ‘히어로(Hero)’ 이후 약 8년 만이다.

27일 레이블 SJ에 따르면 슈퍼주니어는 이날 일본에서 정규 앨범 ‘스타(Star)’를 발매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지난 2013년 일본에서 발표한 다섯 번째 싱글 ‘블루 월드(Blue World)’ 이후 현재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히트곡들이 수록돼 있다.

‘마마시타(MAMACITA)’, ‘데빌(Devil)’, ‘블랙 슈트(Black Suit)’ 등 히트곡 일본어 버전과 ‘온 앤 온(On and On)’, ‘와우! 와우! 와

우!!(Wow! Wow!! Wow!!!)’ 등 일본 오리지널 트랙이 담겨 있다. 또 단체 곡을 포함해 슈퍼주니어-D&E, 슈퍼주니어-K.R.Y., 이특, 예성, 려욱, 규현의 노래까지 유닛과 솔로 곡도 포함했다.

그중 새 앨범에 수록된 신곡 ‘스타’는 디스코를 기반으로 한 업 템포 댄스 곡으로, 신나는 비트와 장난스러운 멜로디가 돋보이는 노래다. 가사에는 ‘새로운 별을 향해 떠나는 즐거운 모험의 시작’이란 내용을 녹였다.

앞서 슈퍼주니어는 일본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도쿄돔에서 공연 브랜딩인 ‘슈퍼쇼’를 다수 개최하고 전국 투어, 오리지널 앨범 발매 등 일본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신곡 ‘스타’를 비롯해 총 30 트랙이 수록된 새 앨범의 전국 음원은 국내외 음악 사이트에서도 감상 가능하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1집 정규 1집 오리콘 주간 차트 정상

‘스틸 드리밍(STILL DREAMING)’, 8만6892장 판매

그들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일본 정규 1집으로 일본 오리콘 데일리 차트에 이어 주간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27일 일본 오리콘 차트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지난 20일 발매한 일본 정규 1집 ‘스틸 드리밍(STILL DREAMING)’은 8만6892장의 판매량으로 2월1일자(1월18일-24일) 주간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스틸 드리밍’은 지난 26일 발표된 데일리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

앨범 발매 첫 날부터 7일 연속 데일리 앨범 차트 1위를 지키며 자체 기록(최장·최다)을 경신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5월 발표한 두 번째 미니 앨범 ‘꿈의 장: 이터니티(ETERNITY)’와 10월에 발표한 세 번째 미니 앨범 ‘미노소드1: 블루아워(minisode1 : Blue Hour)’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스틸 드리밍’이 기록한 첫 주 판매량 8만6892장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자체 최고 기록이다.



이 외에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2019년 3월 데뷔 앨범 ‘꿈의 장: 스타(STAR)’로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3위, 지난해 1월 일본 데뷔 싱글 ‘매직아워(MAGIC HOUR)’로 데일리 싱글 차트 1위와 주간 싱글 차트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SM 에스파, 美 타임지 ‘2021년 주목할 K팝 루키’ 선정

신인 걸그룹 ‘에스파(aespa)’가 미국 타임지가 발표한 ‘2021년 주목할 K팝 신인 그룹’에 선정됐다.

27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미국 타임지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1년 주목할 K팝 신인 그룹’ 6팀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17일 ‘블랙맘바(Black Mamba)’로 데뷔한 에스파가 이름을 올렸다.

타임지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새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멤버들과 그들의 아바타가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랩하는 과격적인 티저 이미지와 영상이 공개되며 궁금증을 증폭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스파의 데뷔곡 ‘블랙맘바’에 대해서는 “엄청난 신스 노트와 풍부한 보컬, 상징적인 안무가 어우러진 강렬한 뮤직비디오로 K팝 그룹 데뷔곡 뮤직비디오 사상 최단

유튜브 조회 수 1억부를 달성했다”며 “에스파는 ‘블랙맘바’ 단 한 곡으로 2020년 가장 뛰어난 신인 중 하나로 등극했다”고 호평했다.

에스파는 데뷔 싱글 ‘블랙맘바’로 역대 K팝 그룹 데뷔곡 뮤직비디오 사상 최단 1억부 신기록을 세운 것은 물론 전 세계 95개국 음원 차트 진입, 미국 빌보드 글로벌 차트 K팝 아티스트 데뷔곡 최고 순위 등극 등의 기록으로 인기를 입증했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오늘부터 넷플릭스서 본다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감독 이종필)이 27일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에 신규 공개됐다.

지난해 10월21일 개봉한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157만명의 관객을 불러모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넘어 주목받았다.

영화는 1995년 입사 8년 차, 업무능력은 베테랑이지만 고졸이라 늘 말단,

회사 토익반을 같이 듣는 세 친구가 힘을 합쳐 회사가 저지른 버리를 파헤치는 이야기를 담았다.

고아성, 이음, 박혜수 등이 출연했다.